<h1>나 혼자만 레벨업-41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k98a732b961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41화</p>  
<p>협회 사이트에도 헌터들의 주소는 나와 있지 않다.</p>  
<p>알 수 있는 건 이름과 등급뿐.</p>  
<p>헌터가 개인적으로 정보를 추가할 수 있지만, 진우는 그 흔한 연락처 하나도 남겨 놓지 않았다.</p>  
<p>그런데도 폰 번호를 아는 건 물론이고 집 근처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걸 보면 따로 조사를 다 해 놓은 모양이었다.</p>  
<p>'아, 그러고 보니...'</p>  
<p>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다.</p>  
<p>"오늘 자꾸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진다 했더니 당신들이었습니까?"</p>  
<p>진우의 목소리가 착 가라앉았다.</p>  
<p>그러자 상대방이 공손한 목소리로 사과의 뜻을 전해 왔다.</p>  
<p>-불쾌했다면 죄송합니다.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. 헌터님께 피해가 갈 일을 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연락드리지도 않았겠지요.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헌터님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.</p>  
<p>진우는 잠깐 고민 끝에 입술을 뗐다.</p>  
<p>"...곧 가죠."</p>  
<p>\*\*\*</p>  
<p>"헌터스, 사신, 기사단, 명성, 그리고 저희 백호. 다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."</p>  
<p>안상민은 대한민국 5대 길드를 차례차례 언급했다.</p>  
<p>그중 넘버원은 헌터스였다.</p>  
<p>하지만 헌터스가 처음부터 최고의 길드였던 것은 아니었다. 원래 그 자리에는 사신 길드가 있었다.</p>  
<p>그러나 사신에서 백호가 떨어져 나가며 1위 자리가 바뀌었다.</p>  
<p>청출어람이라 했던가?</p>  
<p>사신에서 독립한 백호 길드는 이미 사신을 제친 지 오래였다.</p>  
<p>그리고 지금은 사신의 원래 위치였던 1위 자리를 노리는 중이었다.</p>  
<p>안상민은 확신했다.</p>  
<p>맞은편에 앉아 있는 남자, 성진우는 백호 길드가 예전의 영광을 재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.</p>  
<p>안상민이 명함을 한 장 내밀었다.</p>  
<p>\_백호 길드 제2관리과 과장 안상민.</p>  
<p>"그 5대 길드 중 하나인 백호 길드에서 신입 헌터들의 영입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제2관리과의 과장 안상민입니다."</p>  
<p>다른 헌터들이라면 명함을 받기 전에 먼저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대화를 시작했을 상황이었다.</p>  
<p>S급이나 A급 상위면 모를까 그 밑의 헌터들에게 백호 길드는 선망의 대상이었다.</p>  
<p>사실 안상민도 내심 그런 반응을 기대하고 있었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는 달랐다.</p>  
<p>별다른 반응 없이 차분하게 제 할말을 물어 왔다.</p>  
<p>"백호 길드에서 일하시는 분이 어째서 제 뒷조사를 하시는 겁니까?"</p>  
<p>안상민은 흠칫 놀랐다.</p>  
<p>'백호 길드라는 이름을 듣고도 주눅들지 않다니.'</p>  
<p>아직 몇 마디 나눠 보지도 않았는데 어쩐지 성진우를 영입하는 게 쉽지않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.</p>  
<p>반면 그럼에도 꼭 진우를 길드에 합류시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.</p>  
<p>신입에게 패기란 나쁜 것이 아니니까.</p>  
<p>'그래. 이 정도 패기는 있어야 어디든지 써먹을 수가 있지.'</p>  
<p>안상민은 다시 한번 속으로 각오를 다졌다.</p>  
<p>"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. 저희는 성진우 씨를 영입하고 싶습니다. 무조건 유진건설에서 제시한 조건의 두 배를 약속드리겠습니다."</p>  
<p>안상민은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유진건설은 아직 성진우를 테스트하는 중으로 보였다.</p>  
<p>'멍청한 짓이지.'</p>  
<p>그가 C급 던전을 클리어하는 데 걸리는 시간, 재각성 헌터가 지닌 광고 효과.</p>  
<p>그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보여 주는 침착함 등등.</p>  
<p>어떤 면을 봐도 더 이상 테스트를 할 이유가 없었다.</p>  
<p>'가치도 모르면서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했을 리가 없다.'</p>  
<p>그래서 유진건설이 어떤 조건을 제시했든 간에 두 배, 아니 그 이상의 대우를 보장할 자신이 있었다.</p>  
<p>한데 갑자기 진우의 시선이 싸늘해졌다.</p>  
<p>"어떻게 아신 겁니까?"</p>  
<p>"예, 예?"</p>  
<p>예상과 정반대되는 반응에 안상민은 대형 길드의 노련한 영입 전문가답지 않게 말을 더듬었다.</p>  
<p>"어떻게 알고 저를 찾아오신 거지요?"</p>  
<p>말에 무게가 있다면 방금 그 한마디에 압사당했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.</p>  
<p>'뭐지, 이 압박감은?'</p>  
<p>상대는 자신을 적으로 판단한 모양이었다.</p>  
<p>하긴 자신은 진우를 미행하고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다.</p>  
<p>진우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충분히 적으로 여길 수 있는 일이었다.</p>  
<p>안상민은 황급히 설명했다.</p>  
<p>"아, 아, 일부러 뒷조사를 붙인 건 아닙니다. 누군가 저희 길드 구역에서 C급 던전을 너무 빠르게 공략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와 조사하다 보니 성진우 헌터님을 알게 된 겁니다."</p>  
<p>"..."</p>  
<p>진우는 시선을 거두어들었다.</p>  
<p>'그렇게 된 거구만.'</p>  
<p>우려했던 바와 달리 상대가 처음부터 모든 걸 눈치채고 조사를 시작한 게 아닌 듯했다.</p>  
<p>빠른 시간에 많은 던전을 공략하다보니 자연스레 눈에 띄게 된 것이다.</p>  
<p>'딱히 악의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.'</p>  
<p>진우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다.</p>  
<p>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졌다.</p>  
<p>'휴우.'</p>  
<p>안상민은 가슴을 쓸어내렸다.</p>  
<p>하지만 여전히 이야기는 원점에서 머물고 있었다.</p>  
<p>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우의 호감을 살 필요가 있었다.</p>  
<p>'호감을 얻는데 정보의 공유만큼 좋은 방법이 없지.'</p>  
<p>안상민은 영입의 스페셜리스트!</p>  
<p>당황했던 표정을 지우고 금방 다시 원래의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"극비 정보긴 하지만 저희도 유명한 회장이 새로운 길드를 만들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."</p>  
<p>"..."</p>  
<p>진우는 긍정도, 부정도 하지 않았다.</p>  
<p>안상민이 말을 이어 나갔다.</p>  
<p>"그래서 그의 차남 유진호와 성진우 헌터님의 접촉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. 재각성자가 된 성진우 헌터님을 유진 쪽에서 포섭하려고 하는 거구나, 하고."</p>  
<p>역시 안상민은 자신을 재각성자로 알고 있었다.</p>  
<p>'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지.'</p>  
<p>따로 말을 지어낼 필요가 없어지니까.</p>  
<p>안상민은 빠르게 말을 덧붙였다.</p>  
<p>"성진우 헌터님이 유진 쪽과 계약을 맺으시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해,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. 무례하게 느끼셨다면 한 번 더 사과드리겠습니다."</p>  
<p>"괜찮습니다."</p>  
<p>처음부터 악의적인 의도로 접근했다면 모를까, 이렇게 정중히 사과까지 하는데 굳이 화를 낼 필요는 없었다.</p>  
<p>'그보다 중요한 건...'</p>  
<p>이 이후의 대처였다.</p>  
<p>진우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동안 안상민이 한발 앞서 질문을 건넸다.</p>  
<p>"혹시 유진건설과 벌써 계약을 끝낸 상태십니까?"</p>  
<p>대답을 망설이는 걸 보고 그런 결론을 떠올렸나 보다.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약간 초조해 보였던 안상민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다.</p>  
<p>'좋았어! 자유의 몸이라 이거지?'</p>  
<p>C급 던전을 혼자서 30분 만에 올 클리어하는 실력자를 잡을 기회였다.</p>  
<p>정확하게 말하면 별 도움 안 될 D급 헌터도 하나 같이 따라 들어가긴 했지만, B급 이상의 실력자에게 그건 동료라기보다는 짐짝 수준에 더 가까웠다.</p>  
<p>'성진우가 백호 소속이 돼서 등급 재심사를 받을 때 A급 정도만 나와준다면!'</p>  
<p>안상민은 자꾸 미소가 새어 나와 표정을 관리하기가 힘들었다.</p>  
<p>진우는 턱을 긁적였다.</p>  
<p>'이 사람, 왠지 김칫국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...'</p>  
<p>뭐, 백호 정도면 나쁘지 않다.</p>  
<p>5대 길드라 불리는 곳인 데다가 1등을 노릴 만한 저력도 있다.</p>  
<p>하지만 지금 당장 길드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.</p>  
<p>'레벨을 올리면 올릴수록 대우가 달라질 테니까.'</p>  
<p>그리고 먼 훗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고, 어쩌면 영영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.</p>  
<p>'지금 C급 던전을 도는 것처럼 B급, A급 던전을 혼자서 클리어할 수 있게 된다면?'</p>  
<p>상급 던전의 수입은 상상을 초월한다.</p>  
<p>대형 길드들이 대기업들과 맞먹을 정도로 성장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.</p>  
<p>고가의 마정석, 마수의 사체, 던전의 광물, 그밖에 룬석이나 아티팩트까지.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오고 간다. 그 많은 수익을 독차지할 수 있는데 굳이 길드의 다른 이들과 나눌 필요가 있을까?</p>  
<p>'레벨업이 멈추지만 않는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.'</p>  
<p>그러니 길드 가입은 시기상조였다.</p>  
<p>진우의 입꼬리가 올라갔다.</p>  
<p>화답의 징조라고 짐작한 안상민이 진우를 따라 방긋 웃었다.</p>  
<p>"결정을 하셨습니까?"</p>  
<p>"분명 두 배의 조건을 약속하셨지요?"</p>  
<p>"예. 그렇습니다. 조건이 헌터님의 실력에 비해 너무 박하다고 생각될 경우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."</p>  
<p>"그럼 백호 길드가 있는 건물 가격이 얼만가요?"</p>  
<p>안상민의 얼굴이 잠시 경직됐다.</p>  
<p>'설마 백호 길드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건가?'</p>  
<p>아니, 여기서 흥분할 필욘 없지, 이건 길드를 광고할 기회다. 숨길 필요도, 말 못 할 이유도 없다.</p>  
<p>오히려 잘된 일이었다.</p>  
<p>"감정가는 5백억 정도 됩니다. 빌딩 전부를 쓰고 있는 건 아니지만 소유주는 백호 길드로 되어 있습니다."</p>  
<p>안상민이 자랑스럽게 말했다.</p>  
<p>원래는 세를 주고 살던 건물이었는데, 길드가 자리 잡고 나서 아예 건물을 사 버렸다.</p>  
<p>거기까지 걸린 기간이 겨우 1년.</p>  
<p>대형 길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 들이는지 알 수 있는 단면이었다.</p>  
<p>원한다면 길드의 매출이나 순익까지 설명해 줄 용의까지 있었으나, 진우가 가볍게 내뱉은 한마디에 그만 말문이 콱 막혀 버렸다.</p>  
<p>"그 건물 넘겨줄 수 있습니까?"</p>  
<p>"예?"</p>  
<p>안상민은 눈을 휘둥그레 떴다.</p>  
<p>귀를 의심하며 다시 물었다.</p>  
<p>"그,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?"</p>  
<p>진우는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.</p>  
<p>"유진 쪽에서는 저한테 3백억짜리 건물을 준다고 약속했거든요. 백호 빌딩이 5백억이라면 두 배에서 좀 모자라기는 해도 그 정도면 충분히 감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."</p>  
<p>"삼, 삼백억요?"</p>  
<p>안상민은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다.</p>  
<p>성진우의 경력은 4년.</p>  
<p>하지만 그건 E급 헌터로서의 커리어다.</p>  
<p>그가 눈에 띄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.</p>  
<p>최근에 재각성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.</p>  
<p>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지녔기에 사업 수완이 좋기로 소문난 유명한 회장이 3백억을 약속했단 말인가?</p>  
<p>그것도 등급 재심사를 받기도 전에.</p>  
<p>'이,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뻥치는 거 아니야?'</p>  
<p>안상민이 의심스런 눈초리를 보냈다.</p>  
<p>그러자 안상민의 머릿속을 읽은 것처럼, 진우는 폰을 꺼내 어딘가로 빠르게 전화를 걸었다.</p>  
<p>뚜르르.</p>  
<p>딸깍.</p>  
<p>-예, 형님.</p>  
<p>저녁 시간, 조용한 카페 안에서 진우는 일부러 통화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.</p>  
<p>"진호야. 뭐 하나만 물어보자."</p>  
<p>-얼마든지 말씀하세요, 형님.</p>  
<p>진호? 유진호?</p>  
<p>안상민은 침을 꼴깍 삼켰다.</p>  
<p>'설마 나랑 한 이야기를 유진호에게 알릴 생각인가?'</p>  
<p>하지만 안상민의 예상은 빗나갔다.</p>  
<p>진우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.</p>  
<p>"전에 네가 넘긴다는 건물. 그거 가격이 얼마라고 했지?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